

중동 · 아프리카

◆ 이란, 시멘트 산업 설비 수입수요 증가

시멘트 산업의 생산능력 배증(倍增) 계획

이란 광공업부(Industries & Mines Ministry)는 시멘트 산업이 2021년까지 현재의 2배인 연산 6,0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주택 등의 건설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둔 것이다. 현재 이란의 인구 6,500만 명의 50% 이상이 20세 이하의 연령층으로, 현재와 같은 연 1.5~1.6%의 인구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2025년에는 인구가 1억에 이르고 주택과 사회간접자본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택 및 공공건설 수요로 인해 시멘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이 수요에 맞추어 증가하여, 국민 1인당 시멘트 생산능력이 현재의 460kg에서 2020년에는 600kg으로 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건설경기는 높은 국제유가 혜택으로 정부의 재정투자 능력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멘트 산업의 현재 생산능력은 35개 공장에서 중동 지역 최대인 연산 3,000만 톤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 소비 때문에 수

출량은 많지 않아 2000년에는 150만 톤에 그쳤다. 계획대로 시설확장이 이루어지면 2021년에는 수출이 500만 톤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걸프만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수출시장이 될 것이며, 특히 전후 복구 수요에 힘입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시멘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회사들은 전면적으로 증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증설과 성능 개선이 생산능력 증가의 주요 부분이지만 12개의 새 공장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시멘트 공장의 증설 등 건설은 대부분 현지 건설회사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설회사로는 이란 광공업부가 1987년 설립한 에다스 사나트(Ehdas Sanat)가 있다. 이 회사는 이란 제2의 대형 시멘트 공장인 일산 6,000톤 규모의 호르모즈간(Hormozgan)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Bushehr와 Darab 및 Shahr-e Kord에 각각 연산 100만 톤의 시멘트공장을 건설 중이다. 각 공장의 완공시기는 2002년 말, 2003년 중반 및 2005년이다. 역시 국영 기업으로서 이란 국내 최대의 생산능력인

〈표〉 이란의 시멘트 산업

			단위: 천 톤/일		
공 장	모기업	생산능력	공 장	모기업	생산능력
Abyek (2)	FKCC	7.5	Abadeh	없음	0.5
Behbahan	"	2.75	Ekbatan	"	0.5
Bojnord	"	2.0	Esfahan (3)	"	3.2
Doroud (3)	"	3.9	Estahban	"	1.0
Fars (4)	"	3.3	Ghaen	"	2.2
Gharb	"	2.0	Karoon	"	3.0
Nairiz white	"	0.5	Kerman (3)	"	3.6
Ardebil	ES	2.3	Khazar	"	2.0
Hegmatan	"	2.3	Neka	"	2.0
Hormozgan (2)	"	6.0	Saveh white	"	0.5
Khash	"	2.0	Sepahan (2)	"	6.6
Khuzestan	"	3.0	Sharoud	"	2.3
Kordestan	"	2.3	Shargh (3)	"	4.85
Ilam	TCC	2.0	Shomal (3)	"	2.46
Loshan (2)	"	0.6	Shomal white	"	n.a.
Tehran (7)	"	9.6	Sofian (4)	"	4.6
			Urumia	"	2.3
			Urumia white	"	0.5

주: 괄호 안은 코로(kiln)의 수; Tehran은 공장이 2개임; 총 생산능력은 Shomal white를 제외하고 일산 94.16천 톤임.

연산 약 680만 톤을 자랑하는 Fars & Khuzestan Cement Company(FKCC)나 Tehran Cement Company(TCC)도 시설확장을 최우선 사업으로 하고 있다.

수입수요

이같은 시설확장 계획과 관련된 특수설비 공급을 놓고 덴마크의 FLSmith, 독일의 KruppPolysius와 KHD Humboldt 등 유럽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지 기업들이 대부분의 설비 공급 및 시공을 맡으므로 일반 기계설비 수입은 20% 정도에 그치고, 기어 박스(gear box), 분쇄기(crusher), 전기모터 등 특수설비가 주요 수입품목이 될 것이다.

민영화

이란의 시멘트 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

의 통제 아래에 있으나,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민간인이 시멘트 회사의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국영기업인 에다스 사나트를 비롯하여 광공업부, 국영 은행들이 시멘트 회사들의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영화가 정부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현 상황에서 에다스 사나트도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란의 경제개혁과 민간 부문의 역할 증가를 고려할 때, 시멘트 산업도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 또는 국영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민간 투자자에는 각종 사회기금(bonyad)과 공무원 연금기금 등도 포함된다.

【康 峻 秀】

◆ 이란, 자유무역지대 활용방안¹⁾

이란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9% 및 세계 가스 매장량의 1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구리, 철, 주석 등의 광물자원도 풍부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또한 6,500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값싸고 풍부한 인력자원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외국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법률 및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거대자본을 가진 몇몇 다국적 기업들을 제외하면 이란 시장에 진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란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투자하되, 초기에는 투자규모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시장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전략의 하나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장개방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먼저 진출한 기업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1단계: 자유무역지대 회사 설립으로 신뢰를 확보

외국인 투자자를 쉽게 신뢰하지 않는 이란인들은 사업 제의도 신중히 검토하며 성

급하게 수락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특히 회교혁명 이전에 석유메이저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란의 석유자원을 착취했다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중동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란측 관계자(정부 관리, 사업 파트너, 잠재고객 모두 해당)에게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무소를 즉각 설립하고, 잦은 접촉을 통해 이러한 신뢰를 심어줄 수는 있지만, 사업성공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거대 자본을 가진 다국적기업들에 국한된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대에 자회사를 등록함으로써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란의 자유무역지대로는 Chabahar, Kish, Qeshm 등이 있는데²⁾, 자유무역지대는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용절감 및 사업 경영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의 외국인투자 보호장치 미흡, 불투명한 조세정책 등을 감안할 때, 對이란 투자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투자가 바람직하다.

1) 이란에서 투자자문회사를 경영하는 Dr. Albfecht Frischenschlager가 2002년 2월 20일 발표한 자유무역지대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이란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 "Four Steps to Develop Your Business in Iran"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임.

2) Chabahar는 파키스탄에서 가까운 항구이고, Kish는 페르시아만의 섬, Qeshm은 호르무즈 해협의 섬임.

〈표〉 자유무역지대 회사 설립의 이점 비교

구 분	자유무역지대	테헤란
등록 소요 기간	최장 3주	6개월~1년
등록 소요 비용	2,500달러	10,000달러 이상
최 소 자 본 금	120달러 (1,000달러 이상 권장)	2,500달러
사 무 실 운 용 비 용	월 100달러(비서업무 및 전화/팩스 전달 서비스 포함시 월 300달러)	-
세 금	15년 간 소득세 및 자산세 면제	인정과세이므로 소득이 없어도 상당한 파세를 당할 수 있음

2단계: 사업 개시

일단 자유무역지대에 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지역의 외국회사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사업상 이점이 있다.

첫째, 현지화폐로 거래가 가능하다. 자유무역지대에 등록된 회사는 외화가 부족한 이란의 구매자 앞으로 리알貨 표시 청구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물품대금으로 영수한 리알貨는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민간 환전상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환전하여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란의 사업자들이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려면 자체 수출로 획득한 달러를 활용하거나 테헤란 주식시장에서 다른 수출자로부터 외화증서를 사들여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지대의 회사들이 현지화폐인 리알貨로 물품대금을 영수할 수 있다는 점은 고객 유지에 있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둘째, 신용장 개설이 불필요하다. 이란의 수입상들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신용장을 발급받아야 하나, 이란 상업은행들의 신용장 발급절차는 복잡하고 또한 상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입상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러나 수입자가 자유무역지대에

등록한 외국인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수입자는 신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금결제나 선불 등 일반적인 수입거래에는 금지되어 있는 대금결제조건이 가능하다. 이 금융조건의 융통성은 자유무역지대의 회사에게 큰 이점이며, 아울러 거래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3단계: 사업 확장

자유무역지대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이 본래도에 오르게 되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첫째, 테헤란에 상주 대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지대 관련 법규에 의하면 자유무역지대에 등록된 회사는 이란 본토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또 대표사무소가 연락과 마케팅 서비스 업무만 한다면 세금 면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둘째, 일단 고정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자유무역지대에 물품창고를 개설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창고를 임차할 수 있는데, 자유무역지대에 물품창고를 보유함으로써 즉시 주문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외국 수출자가 공급에 1~2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특히 이란 회사들이 물품을 한꺼번에 급하게 주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의 적시성은 매우 중요하다.

4단계: 조립·생산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고정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자유무역지대에 조립·생산라인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조립 및 생산 공정이 간단하고, 자본소요가 적으며, 이란 및 그 주변 국가의 수요가 확인된 것이 유리하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 및 조립된 물품들은 자산과 소득에 대해 15년 동안 면세 혜택이 있으며, 노동력, 에너지 및 원재료의 구입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물품을 이란 본토로 반입하는 것은 수입으로서 수입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유무역지대에서 부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받는데 부가가치 비율이 60~70%에까지 이르는 상품도 흔하다. 따라서 외국에서 곧바로 본토로 수입되는 물품에 비해 관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란 회사들은 자국에서 수리나 유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 물품들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이란 국영 석유회사는 외국 공급자들에게 유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에 A/S 센터를 개설하는 것도 시장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리인과의 병행

앞에 언급한 자유무역지대 자회사 설립의 여러 장점들은 이란 본토에 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대리인과 자회사의 병행은 대리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게 될 정도로 사업을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다. 또한, 본토내 판매대금을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수령하는 대금회수의 안전성 확보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이란 자유무역지대는 자본 및 이익의 자유로운 출입, 이란 본토에 비해 유연한 노동 및 고용 규정, 자유무역지대로 직접 입국할 경우 無비자 입국 가능, 본토의 수출 관련규정 적용 면제, 자유로운 은행·외환 관련규정 적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란주재원】